■ 세밑 독거노인 돌 보는 복지사 동행 취재

"얘기 나눌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거동 불편해 약봉지 차고 살아
외로움 달래려 TV 켜 보지만…
한파에 복지사 못올까 걱정 앞서

불경기라지만 연말을 맞은 유명 식당들은 송년모임으로 빈 자리를 찾기 힘들다. 유흥가도 특수를 맞아 밤이면 꽤나 북적인다.

하지만 겨울이 더욱 춥고 외롭게만 느껴지는 이웃들도 있다. 2012년을 눈 앞에 둔 27일. 엿새째 세밑 한파가 이어졌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게 하루 한차례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따라 나섰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처음 방문한 곳은 쌍촌동 한 주공아파트.

"계세요. 도시락 배달왔습니다"라는 기척에 기자와 사회복지사를 맞아준 사람은 홀로 생활하는 박순효(85·가명) 할머니였다.

박 할머니는 전날 배달됐던 빈 도시락을 건네며 기자의 손을 꼭 잡았다.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홀로 생활하는 박 할머니는 자신을 찾아준 이들이 반갑기만 한 것이다. 박 할머니는 쉰아홉이 되던 해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됐다. 연락할 만한 피붙이라고는 이따금 반찬을 싸들고 찾아오는 조카딸이 전부다. 홀로 생활한 지 어림잡아도 20년은 흘렀다. 설상가상으로 3년 전에는 계단에서 넘어져 골반 수술을 받고, 거동도 불편해 졌다. 제대로 다리를 움츠리지 못해 바닥에는 앉지도 못한다. 때문에 매일 한 주먹이나 되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 수술 이후 동네 복지관에 들러 이웃 노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힘들어졌다.

박 할머니가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아픈 몸을 이끌고 앉았다 눕기를 반복하는 일뿐. 가끔 외로움을 달래고자 TV라도 켜보지만 이마저도 즐겁지는 않다.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해주는 가족들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외조카 손자가 결혼했지만 몸이 불편해 가보지도 못했다. 지금쯤 한창 손자며느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란다.

박 할머니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오전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와 점심시간에 배달되는 사랑의 도시락이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탓이다. 그래서 박 할머니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한달음에 현관으로 향한다.

박 할머니에게 한파는 모질기만 하다. 남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며 내린 눈이 반갑지만 그에게는 도로가 얼어붙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오지 못할까봐 걱정이 앞선다.

송년모임으로 바쁜 시기지만 박 할머니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는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한편, 이날 쌍촌동 관내 사랑의 도시락이 배달된 곳은 모두 35세대. 하나같이 박 할머니와 같지만 또 다른 서글픔을 간직한 채 외로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7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 35세대에 배달할 '사랑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감독소홀 임차상인 피해, 지자체도 배상"

순천시 남내 지하상가 보증금 절반 23억 물어줘야

광주고법 판결

지하상가 개발을 맡은 민간사업자의 부도로 생긴 상인 피해에 대해 자치단체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민사 3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7일 순천시 남내동 지하상가 상인 7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순천시가 상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 47억4000여만원 가운데 절반인 2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천시와 민간사업자(D사) 간 시설투자협약,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을 보면 D사는 매년 일정액의 환불 준비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고 순천시는 이를 감독해야 한다"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순천시가 직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년치 환불준비금을 어음으로 받고, 10년 동안 예치실태도 점검하지 않은 점을 배상책임의 근거로 삼았다.

순천시는 1988년 7월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D사에 지하상가 설치와 임대사업을 하도록 했다. 당시 D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환불준비금 명목으로 20년간 매년 일정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기로 순천시와 약정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1990년 지하상가가 완공되고 나서 10년치 환불준비금 35억원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받았다. 임차인 77명은 D사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단속 피해라" 슈퍼마켓서 화대 '카드깡'

성매매 업주·슈퍼 주인 등 무더기 적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창촌 주변의 소형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화대를 결제하게 하는 신종 카드깡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남이 대거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은 27일 여성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 등 업주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다른 업주 3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4명, 성매수 남 41명, 성매매 여성 2명, 성매매 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한 슈퍼마켓 주인 1명 등 모두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8월 광주시 동구 대인동 집창촌 일대에서 회당 8만~36만원을 주고받으며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창촌 업주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슈퍼마켓의 3개월간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

업주들은 성매매 시간에 따라 8만, 18만, 36만원을 결제해 주고 슈퍼마켓 주인은 1만~6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새벽 시간 비슷한 금액을 결제한 56건을 파악해 41명의 성매수남과 해당 업주 등을 차례로 적발해 입건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봉암 선생 유족에 국가는 24억 배상하라

서울지법 판결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7일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 선생의 아들에게 13억원 등 2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고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집행됐다.

52년이 지난 올해 1월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 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전남경찰청 600만원 들여 '청장 산행기' 발간 논란

임승택 전 청장 재직시

전남지방경찰청이 전임 임승택 청장(현 경기경찰청 2차장) 재직시 자체 운영비로 산행기를 발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2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은 최근 600만원의 예산으로 임승택 경기경찰청 2차장의 산행기 '중머리재 당산나무' 500권을 제작, 발간했다.

책은 임차장이 쓴 산행기 50여편과 발간사, 외부 인사의 추천사, 직원들의 댓글 형식으로 묶여 있다.

발간된 책은 전남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직원 등에게 배부됐다.

임 차장은 전남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매주 토요일 관내 경찰서를 돌며 직원들과 산상 워크숍을 갖고 지방청 홈페이지에 수필 형식의 산행기를 연재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경찰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산행기까지 펴내야 했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직원은 매주 휴일마다 산행을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며 직원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일부는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산행은 희망자나 직능, 과별로 직원들이 참여해 이뤄졌고 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소통했던 내용을 기록 차원에서 발간했다"며 "책의 주인공은 청장이 아닌 일선 직원이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진로문제 목 매고… 연탄 피워 놓고 죽고…

연말 자살·변사 잇따라

연말을 맞아 신변비관·외로움·병고 등을 이기지 못한 자살·변사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한 원룸에서 모 대학교 약대생 A(28)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같은 학과 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로문제로 가족과 교수들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12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가장 B(51)씨가 농약을 마시고 신음하는 것을 부인 C(49)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B씨는 자녀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고민해 왔으며 안방에 '미안하다, 죽고싶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며 홀로 살아온 D(48)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또 26일 오후 12시36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진동 평동2공단 도로에서는 회사원 E(52)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연탄 화덕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유치원서 남아 뇌출혈 사망

여수서 … 책임 논란

유치원에서 5살 남자아이가 쓰러진 채 2시간 후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 10분께 여수시 모 유치원에서 A(5)군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안으며 쓰러졌다. A군은 원장실로 옮겨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않아 2시간여만에 병원으로 옮겨으나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로 부검 결과 외부충격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족은 A군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숨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 측은 "A군이 잘 놀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잠깐 좋지 않은 줄 알고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송년회 만취 여성 모텔 끌고가 성폭행

쌍나팔

○…송년모임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귀가중이던 여성에게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서행.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서모(35)씨는 지난 22일 밤 10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A(여·31)씨를 성폭행하고,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노래방 등에서 33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서씨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의 카드를 이용해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미용실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즐기다가 경찰에 덜미.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졸업시기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준비과목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대학별 지원(최다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1 월2일